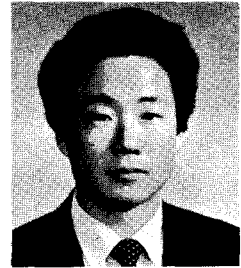




# 한국 농업 교육의 방향



김 정 철

51년 전남 장흥 출생  
80년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축산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현재 장성실업고등학교 교사

21세기를 바라보는 우리들 앞에 장차 농업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는 농업에 관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과제이다.

우리 사회는 전통적인 농업 중심에서 공업화, 도시화, 정보화가 주도하는 공업중심 내지는 지식중심사회로 바뀌면서 인간의 가치와 행동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반만년 역사 속에서 농업을 위주로 발전해온 우리가 30여년의 짧은 기간 동안 신흥 공업국으로 탈바꿈 하였다. 이것은 서구 사회가 200~300년 동안에 걸쳐 산업사회로 전환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농업에서 공업으로의 산업 전환은 너무나 짧아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는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현재 농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은 농업에 대한 기계화가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가 인구가 절대수가 격감되어 농촌 일손이 부족하므로 농촌의 품값은 급상승되고 농지의 유희지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1960년 전체 인구의 58%(1,450만명)에서 1990년 15.3%(약666만명)로 많이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감소 추세는 앞으로 얼마 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에 남아 있는 인구는 청·장년층이 아니고 노인층이 1980년 10.6%에서 1989년 18.2%로 급격히 증가되었다. 이처럼 농촌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축산농가의 호당 사육두수는 계속 늘어나 축산

농가의 규모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홍보나 농업 생산기반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많은 외국 농축산물이 수입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0년대부터 물가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쌀, 보리 등 주곡의 수매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농가소득이 늘지 않아 부채는 늘어갔고 농산물값의 상승 기미가 보이면 걸핏하면 외국에서 양념류까지 수입해 결국 농민들에게는 커다란 정신적, 경제적 타격을 주었다. 농산물값이 오르면 소비자들은 부담이 늘지만 농민들에게는 소득이 늘어난다는 단순한 원리를 망각하고 가격이 오르면 수입만으로 해결해 왔다. 반면 농산물이 생산과잉이 되면 정부의 조치는 극히 미약하였으며 그 결과 농민들만의 손해를 초래하였던 정부측의 무성의, 무계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면 현재 수입이 급증된 바나나 하나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심한 타격을 받는 지 알 수 있다. 각 지역의 저온 저장 창고에 쌓아 놓은 바나나 때문에 수확된 양파가 입고되지 못하고 야적된 상태에서 썩어 가고 있으며 더욱 한심스러운 일은 농민의 대리인 또는 농민의 보호단체라는 농협 공판장에서 국내 생산품으로 둔갑시켜 경매를 하는 일이 있다니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무조건 국민들의 생필품값이 낮으면 물가는 안정되고 복지국가로 발전해 가는 차원으로 생각하며 값싼 외국 농축산물의 수입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비교 우위론 추종론자들은 상대적으로 농가 부채가 늘어나 시름하는 농민들의 보호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외면하는 처사를 알 길이 없다.

장차 쌀이 개방된다면 벼농사 지을 사람이 적어지고 축산, 원예 등 고소득을 올리는 쪽으로 방향을 돌린다면 축산, 원예도 생산과잉이 되어 농민들

의 생활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농업교육의 문제점은 농업 고등학교의 입학률 기피하고 영농의 의지나 자질을 가진 학생이 오지 않고 있다. 전국농업고등학교의 학급수 및 학생수의 감소현황을 보면 1982년 편성 학급수 1,439학급, 학생수 86,160명을 최대로 하여 그 이후 계속 줄어들어 1990년 9월에는 1,248학급에 49,397명이 재학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여학생은 6,429명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10년 동안 축산분야를 지도해 오면서 영농후계자로 둔 재자는 양돈 1명, 양계 2명, 낙농 2명 뿐이다. 이렇게 농촌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농업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입학동기를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 중학교의 학업성적이 낮아 어쩔 수 없이 농업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로 지능이 아주 낮거나 학습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들로서 미래에 대한 자화상도 희미하다.

둘째,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학생들로 우리 학교의 경우 생활보호 대상자가 전체 학생의 약 20%에 달하며 이렇게 어려운 환경 때문에 영농 의지가 있다해도 농업기반이 없어 농촌에 정착을 하지 못한다.

셋째, 장차 영농후계자가 되기 위해서 진학하는 학생들로 이들이 3년간의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막연하게 생각했던 농촌문제가 현실적으로 자신의 문제로 대두되면서 많은 고민을 하다가 언젠가 기회가 오면 다시 농촌을 찾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남기고 졸업할때는 1~2명만이 농촌에 남게 된다.

현재의 농업교육 과정은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중견 영농인 양성이라는 교육 목표하에 있기 때문에 장차 자신의 진로와 맞지 않는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이 좋을 수 없다. 그래서 농업 고등학교의 교육목표를 농업 기능인 양성으로 하여 농업고등학교에서는 농업에 관한 일반적인 원

리와 기능을 익히고 장차 영농을 희망하는 사람은 농촌 지도소나 선진농가에서 전문교육을 받아 영농인으로 정착하고 농업 관계직이나 일반 생산공장의 근로자로 취업하는 사람도 해당 직무교육을 받아 적응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고등학교 진학율이 90% 이상에 이르고 있는 현실에서 고등학교 교육은 일반 교육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영농의 의지를 가지고 있을 지라도 영농기반이 약한 경우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영농 후계자 자금 정도로는 자립해 나가기가 무척 어렵다. 현재 작목에 따라서는 1,3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 지원해 주지만 운영비가 없어서 중도에서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계화, 과학화 영농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원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정부에서는 7월 9일 낙후된 농수산업의 전문화를 위하여 「농어촌 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는데 낙후되어 있는 농수산업을 전문화하고 완전 기계화된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시키고 우리의 농어촌을 농수산업과 2, 3차 산업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활편의 시설과 푸른 자연이 함께 하는 쾌적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부터 오는 2001년까지 구조개선에 투입되는 자금은 35조5천60억원이고 농어촌 활력증대에 들어가는 자금은 6조1천9백60원으로 모두 41조7천20억원에 달한다.

이 계획에서 정에 인력확보를 위해서 현행 농어민 후계자 지원제도를 대폭 개선하여 연간 1만명 수준의 농수산업 후계 인력을 육성하여 전업 농어가로 육성하기 위해 우수한 자영농과가 있는 농업 고등학교를 농업기술 전문대학으로 개편하는 것을 검토하고 농장 경험과 고도의 영농기술을 가진 자에게 「영농기술사」 자격을 부여하고 1급 기술사에게는 3억원 한도, 2급 기술사에게는 1억원 한도내에서 특별 금융을 지원할 계획을 내놓았다. 이와 같은 계획이 진행되면 농업고등학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그 대신 농업전문대학이 점차 늘어나 농

업분야에서도 고학력사회가 되고 「영농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농촌에 정착할 사람이 점점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고품질,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탈바꿈하는 단계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점차 기업화, 기계화, 상업화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영농 분야에는 기업을 관리·운영하는 관리자와 작업을 담당하는 기능인, 기업화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관련 산업 인력이 필요하게 되어 관리자 양성은 전문대학이나 4년제 대학에서 맡고 영농 및 농업 관련직에 필요한 기능인 양성은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구성을 학문 중심에서 직무 중심, 학생들의 흥미, 활동 중심으로 편성하고 전문대학 이상에서는 해당 전문 분야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현재의 농업교과의 교육과정은 이론 50%, 실습 50%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론적으로 배운 것은 실습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능을 숙달시켜야 효율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완전 기계화 시설이 안된 경영포 중심의 농장 운영으로 학생들의 육체적인 노작 실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같은 실업계인 공업계와 농업계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교육 실습비에서도 차별을 두어서 공업계는 소모성 지원으로 그치지만 농업고등학교에서는 실습 포장에 투자한 금액을 확대 재생산하여 그 판매대금을 다시 국가에 불입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학교 농장에서 담당 교사와 학생들은 경영 설계에 의한 목표액을 불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하는데 선진국형의 과학적인 기술을 익히는 실습이 아닌 육체적 실습이 과중하여 학생들은 실습 뿐만 아니라 농업교육 자체를 기피하게 되고 학생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교사는 항상 작업복을 입고 포장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눈에는 술선수범하는 존경스런 선생님이 아닌 부지런한 아저씨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 농과 교사들의 사기는 극도로 저하되어 있고

불입금 자체가 보이지 않는 교사들의 평가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학생들에게는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상으로 생각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능 숙달을 위해서는 실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학생들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새롭고 실제로 이용 가능한 기술을 지도할 수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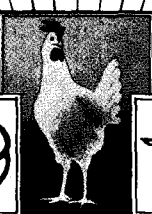
교육방법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학교 농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지금의 불입금에 의한 경영이 아니고 공업계 학교와 같은 조건의 순수한 실습 교육용으로 지원이 되어야 과도한 노작 실습을 줄일 수

있다. 또 필요 이상으로 크게 운영되고 있는 농장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자립농고 육성을 위한 지원책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목장을 가지고 있는데 기계화 하기 어려운 입지조건이 되어서 대부분 학생들의 육체적인 노작 실습에 의지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농업고등학교 진학 및 축산과 지원을 기피하게 만든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앞으로 정부의 농업에 대한 의지가 담긴 「농어촌 구조 개선 대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농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며 농업 교육도 재미있고 즐거운 교육이 될 것이다. **양지**

## 동물약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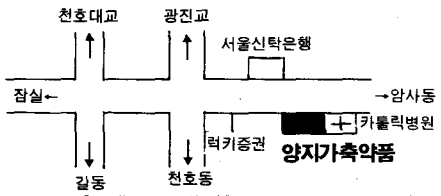




## 도매전문

◎ 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는  
**동물약품 도매상 양지가축약품**

◎ 같은 약이라도 처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상담환영 (질병상담, 판매점 개설상담)  
지방주문환영 (신속, 정확한 발송)



### 양지가축약품상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57-8  
 전 화 : (02)478-2208, 477-9332  
 F A X : (02)488-8627